

유일동물병원, 사슴마취 교육 실시

- 이론과 실습 접목된 마취교육에 170여 양육인 높은 관심 -

“사슴마취... 내손으로 한번 해보자”

지난 3월20일 충남 천안 소재 유일동물병원(대표:유일준 수의사) 부설 목장에서 실시된 사슴 마취 실습 및 세미나에 전국의 양육인 170여명이 운집, 사슴마취 교육에 관해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절각시 마취를 실시하면서도 한편에 늘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던 농가들은 이날 행사에 참여, 안전한 마취 요령에 관한 교육도 받고 직접 마취도 실시해보는 등 이론과 실습이 접목된 행사에 시종 진지한 모습으로 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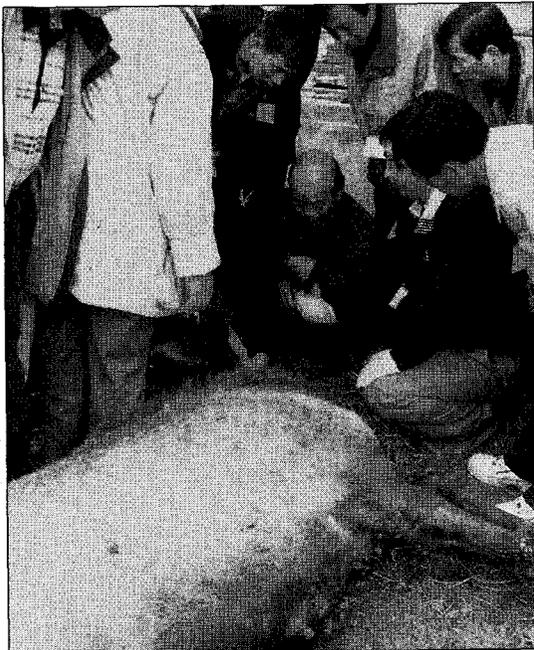
이날 행사에 참석한 양육인들은 현재 국내에서 시판중인 다양한 마취제를 사용해 총 11두의 사슴에게 마취를 실시, 마취 후 사슴상태 및 회복상태를 관찰하고 안전한 마취 방법을 교육받았다.

행사를 주관한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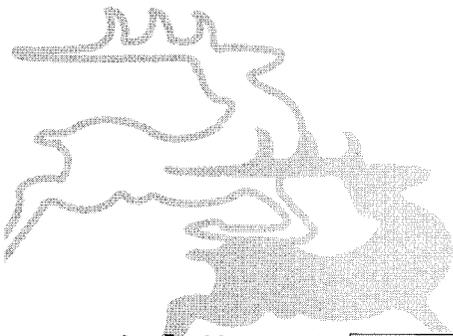
일준 수의사는 “해마다 사슴농가들이 절각 및 사슴치료 등을 위해 마취를 실시하면서 잘못된 마취 방법으로 아까운 사슴이 폐사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안전한 마취 요령 습득이 곧 안정적인 사슴사육의 첫걸음이란 생각으로 금번 행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이번 행사의 취지를 알렸다.

유일준 수의사는 이번 마취 교육을 통해 ▲ 마취의 개념 ▲ 마취시 숙지사항

▲ 마취 사고 방지 요령 ▲ 절각을 위한 마취 방법 등에 대해 강의하고 배운 내용을 직접 참가자들이 실습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했다. 또한 마취 외에도 사슴의 난산과 그 처리방법, 포피염 등 사슴과 관련된 각종 질병 발견 및 치료 요령에 대해서도 강의 및 마취 실습이 끝



▲ 마취된 사슴의 상태를 살펴보는 참가자들



난 후에는 종합 토론 시간을 마련, 농가들이 그동안 농장을 운영하며 궁금했던 점들에 대해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는 시간을 마련하는 등 보다 효율적이고



▲ 종합 토론 시간.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관련 내용 본문 참조)

신규 사슴사육농가라고 밝힌 한 양록인은 “사슴과 관련된 교육 습득의 기회가 많지 않아 농장을 경영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고 말하며 “오늘과 같은 행사, 특히 이론과 실습이 접목된 행사는 보다 쉽게 교육내용을 습득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고 금번 행사에 흡족함을 표시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양록인 외에도 수의사, 대학교수, 관련계통 대학생들도 참석해 마취에 관한 교육을 양록인들과 함께 했으



▲행사를 주관한 유일준 수의사. 참가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

며 국내 사슴업계 동향 및 사슴농가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전해 들었다.

이날 행사를 성황리에 마친 유일준수의사는 오는 4월17일에 2차 세미나를, 5월

9일에는 3차 세미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유일준수의사는 “2차 및 3차 세미나에서도 마취에 관련된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지만 시기에 맞는 교육이 실시될 것이므로 내용은 매번 다를 것”이라며 양록인들의 꾸준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유한양행, 한중마그네슘, 현대상사, 소망사슴농원, 흥정사슴농장 등이 참여해 행사 진행을 돕고 관련 기자재를 전시 판매했다. **한국양록**